

"지방에서 발리행 직항 띄운다"... 한·인도네시아 하늘길 확대

국토교통부는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-인도네시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.

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, 2012년부터 양국 국제선 운항은 주 23회로 제한돼왔다. 이번 회담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운항을 자유화하기로 했다. 이에 따라 김해(부산)·대구·청주·제주·무안·양양공항과 인도네시아의 바탐·마나도·롬복·육아카르타(족자)·발릭파판·케르타자티공항 간에는 운수권이 없어도 항공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.

일부 노선은 새롭게 운항을 시작하기로 확정했다. 인천~바탐, 인천~마나도, 국내 지방공항~자카르타, 국내 지방공항~발리 노선을 각각 주 7회씩(총 28회) 추가 운항하기로 했다. 성수기에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항공사 간 공동운항(코드셰어)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진다. 국토부는 이번 회담 결과로 그간 국내 지방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,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.